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오해와 진실

최고 평가항목은 학업능력 무분별한 스펙은 되레 손해

서울대는 올해부터 수시전형인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모두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서울대는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줄이고자 최근 입학사정관 가이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밝힌 입학사정관 평가항목 중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는 항목도 담겨있다. 서울대의 대입기준은 타 대학의 지표가 되는 만큼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오해 항목을 살펴봤다.

어학점수 높은 학생 유리하지만은 안해

◇수상경력으로 낮은 내신성적 뒤집을 수 있다=서울대는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수상경력 등 개별 평가영역에 대한 반영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지만 학생선발에 있어 학업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내신 성적이 낮은 경우 수상경력 등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 라인을 보면 대외 경시대회보다는 교내에서 제공하는 심화학습의 유무, 특성화 프로그램, 학업관련 동아리 활동까지 고려해 학업능력을 평가하므로 학교생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학교성적은 낮으면서도 교외수상만 많다면 사교육의 힘을 빌려 스펙을 쌓은 수험생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으로 보인다. 다만 교내 수상실적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교과소개서에 3개 이내의 고교시상 내역을 받고 있는데, 이는 성실한 학교 생활이 우선이고 공교육을 통해 성장한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는 것은 오히려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교 밖에서 평가를 했다던 먼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찾아보게 되며, 그 사유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학생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어학점수가 높아야만 서울대 인재상에 적합한가=서울대 인재상을 보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이 있다. 이는 자칫 어학점수가 우수한 수험생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비슷한 성적대의 두 학생 중 토플 점수가 933점인 수험생은 불합격한 반면 토플 778점인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으며, 공인외국어 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합격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더위 잊은 고3 교실

10일 전남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18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시험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대 산업인력원 '대학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 시행 대학 선정

미취업 대졸자 '맞춤형 취업교육'

교육비 무료 교통비 지원

10개 과정 1000여명 모집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미취업 대졸자 교육과 광주·전남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실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대는 최고의 강사진과 첨단 기계를 도입한 산업인력교육원(원장 염환석 교수)을 통해 고급기술 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대는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미취업 대졸생 대학 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 시행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취업 대졸생 대학 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시행,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2006년~2010년 미취업 대졸자 및 오는 8월 졸업예정자로, 교육비 및 교재는 무료이며 식대 및 교통비도 지원된다.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은 건축기사·정보관리사·사무자동화기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경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7개 자격증 취득과 정교 디지털 영상제작 창업 및 취업과 정·경찰공무원·사회복지공무원 시



경찰학이나 법학, 행정학과 등을 졸업한 미취업자들이 현직 경찰로부터 특강을 듣고 있다.

험과정 등 총 10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10개 개설과정 이외의 특정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자가 20명 이상이면 신규 과정으로 개설하는 등 취업·창업중심 교육명문대학으로서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취업 및 창업 능력 향상이 목표인 만큼 교육의 주안점을 국가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전문성 향상에 두고 취업준비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은 지난 2008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주관한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사업에 응모해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역 사업시행 대학으로 선정돼 설립된 기관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중 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고급기술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선정 대학들에 대해 훈련비용·시설·장비비·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광주대는 사업기간 6년 동안 70억원을 들여 우수한 교육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 제조·건설·정보통신·품질관리·회계 등 분야별 실무 위주의 전문 강사진을 확충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산학협력단

가족회사교류 콘서트

다비치·씨아·노라조·포커즈·박미경 등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이 호남대에서 펼쳐진다.

호남대 산학협력단(단장 윤인모)과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단장 양승학)은 '산학협력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8시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산학협력 가족회사 관계자와 시민 등 3000여명을 초청해 가족회사교류회(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호남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단장 양승학)은 현재 220여개의 지역 기업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여차현양

대학무용경연 은상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무용학과 여차현(3년) 양이 최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 대학무용경연대회에서 현대무용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여차현 학생은 개인부분 30명 참가자 중 2위인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현대무용 부문은 군무 4작품을 포함해 총 34개 팀이 참가했고, 여차현 양은 개인부분 30명 참가자 중 2위인 '은상'을 수상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역출신 특별전형 30명으로 늘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2011년 입학전형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오희균·이하 치전원)이 내년에는 지역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자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선발한다.

치전원은 10일 '2011년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

부터 7월 1일까지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입시요강은 작년과 비교할 때 신입생의 숫자는 같으나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비율이 바뀌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

다. 특별전형은 광주·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이 지역출신 입학생 수를 별도로 정하여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재들이 치과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입학전형 방법이다.

치전원은 특별전형 비율을 늘려 전체 70명 신입생 정원의 43%에 해당하는 30명의 학생들을 이 지역출신으로 뽑기로 결정했다.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서 14명, 정시모집에서 16명을 뽑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Court Auction Real Estate Sale Notice). It features a grid of text boxes containing details about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addresses, lot numb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uctioneer. The text is dense and organized in a structured layout.